

▲ 경북 경주지부 사무실 앞.
좌측부터 고진욱 대리, 이연숙 간사, 배만용 지부장, 김남극 총무

지난 2월 19일 개최된 본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경북 경주지부가 우수지부로 선정되었다. 경주지부는 2002년 8월 지부 설립 이후 이어 단기간에 많은 회원 확보를 하였으며, 회원들이 2003년도에 회비와 임의자조금 납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동참하였다.

경주지부는 영농조합법인별로 각종 사업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공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돈농가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직접 챙겨 공평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3년 우수지부

양돈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경북 경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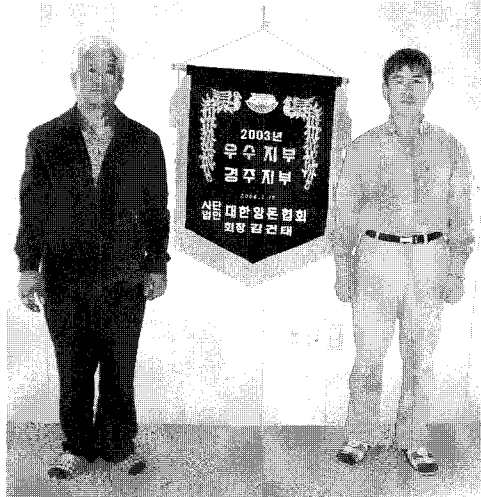
취재 : 정재은

경북 경주지부(배만용 지부장, 56세)는 양돈인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분뇨문제 해결을 위해 액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 및 경주시 등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직접 챙겨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이 협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됨에 따라 회원수가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 등 대규모 단체가 모여 결성된 경주지부는 각종 사업과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회비와 자조금 납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협회의 각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무료시식회 행사 전개를 통해 돈가 안정과

돼지고기 소비촉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축산박람회나 브랜드경진대회 단체 참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매월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회원들 전체가 모여 월례회의 개최와 함께 사양 및 질병 분야 세미나 및 교육, 환경개선 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원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 2003년 우수지부로 선정된 경주지부. 배만용 지부장(좌측)과 김남극 총무

지역 양돈단체가 모여 효율적인 경주지부 운영

지난 2002년 8월 경주지역 월성양돈영농조합법인, 경주양돈영농조합법인, 경월양돈영농조합법인, 자농회, 산수골양돈영농조합법인 5개 단체는 양돈인들의 위상제고와 정보교류, 단합을 위해 협의 하에 경주지부를 설립하였다.

경주지역에서 140여 농가가 14만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58명의 회원이 11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3,500두 대규모 농가 등 500두 이상 사육농가는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들 평균 사육두수는 1,500~2,000두 수준이다. 초창기 20명이 뜻을 모아 경주지부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회원이 증가하여 2004년 3월말 현재 58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경주지부는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별로 융통성 있게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경주시와 밀접한 관계

를 유지하면서 양돈농가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직접 챙겨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원은 배만용 지부장, 손영근 부지부장, 양병태·이태호 감사, 김남극 총무, 각 단체를 대표하는 박해원(경주양돈영농조합법인), 최상기(산수골양돈영농조합법인), 이정우(경

월양돈영농조합법인), 박철용(자농회), 박장락(월성양돈영농조합법인) 등 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만용 지부장과 김남극 총무(44세)를 비롯한 임원진은 양돈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선진 사양기술 습득에 여념이 없으며,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회원농가들에게 보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경주지부는 회비 등 협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월 1만원의 회비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지부장을 맡게 되는 단체의 사무실과 직원을 활용하여 지부를 운영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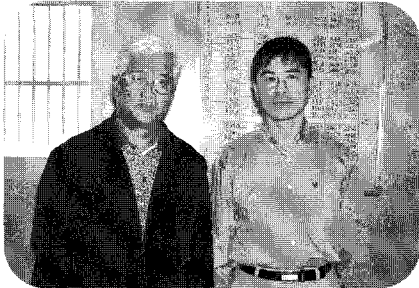
▲ 경북 경주지부 배만용 지부장

감으로써 지부장이 항상 지부 일을 세밀히 검토하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다.

분뇨처리를 위한 액비유통센터 사업 추진

경주지부는 양돈인들의 골칫거리인 분뇨문제 해결과 축산분뇨를 자원화를 위한 액비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배만용 지부장은 “김남극 총무 등과 함께 2년에 걸쳐 액비화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자연산 비료 공급과 5~10% 정도의 농작물 수확량 상승으로 인해 경종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환경친화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양돈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유기축산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액비화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통 1년 단위로 비 농경지 40만평에 양돈농가가 직접 액비를 공급(약 월 300톤 액비 살포)해 주고 있으며, 올해는 경종농가에 액비 저장조 5개



▲ 경주지부 배만용 지부장(좌측)과 김남극 총무



▲ 경주지부 고진욱 대리(좌측)와 이연숙 간사

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액비 성분분석, 살포량 측정, 살포결과 등에 관한 검증작업과 시연회 및 세미나 개최, 관련 책자 발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3년에는 해양투기에 대해 지부에서 사업 건의와 추천을 하여 47농가를 대상으로 톤당 1,600원의 지원을 하였다.

단체별로 융통성 있게 다양한 지부사업 전개

영농조합법인 등 대규모 단체가 모여 결성된 경주지부는 각종 사업과 행사를 단체별로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별로 출하는 통일하여 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따라 사료, 약품, 각종 기자재 공동 구매와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월성양돈영농조합법인 소속 농장위주로 사료회사와 배합비율을 정하여 OEM사료를 공동구매하고 있다. 시중에서 보다 사료를 kg당 70원~100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함으로써 생산비 절약과 여신 및 경영상태 개선 등의 혜택을 얻고 있다. 아울러 경주지부는 경주시의 협조 아래 올해 5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300만원 정도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배만용 지부장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구성해 돈사 환기 및 시설 컨설팅을 해나가고, 일본 등 선진국의 사양기술을 습득하여 보급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지부를 통한 정부지원사업 공평하게 배정

경주지부는 경북도 및 경주시 등의 관공서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돈을 해나가

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직접 챙김으로써 지부를 통해 양돈농가들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경주지역 양돈농가들은 자연스럽게 협회의 필요성을 느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03년에 경북도와 경주시 지원으로 75농가 1,110두 대상으로 모돈갱신사업(모돈 1두당 10만원 지원)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경주시 지원으로 750두에 대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 20%, 경주시 80% 보조로 2003년에 80농가 24,300두 대상으로 규격돈지원사업(A등급 두당 3,000원 지원)을 전개하였으며, 올해 85농가 29,000두로 지원규모를 약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2003년에 경주시의 협조 아래 20농가 대상 20대의 고액분리기, 40농가 대상 15,950포 톱밥 지원사업을 통해 80% 보조를 하였으며, 경북도와 경주시로부터 13농가 대상 13대의 돈사 열풍기, 13농가 대상 15대의 돈사 냉방기 50%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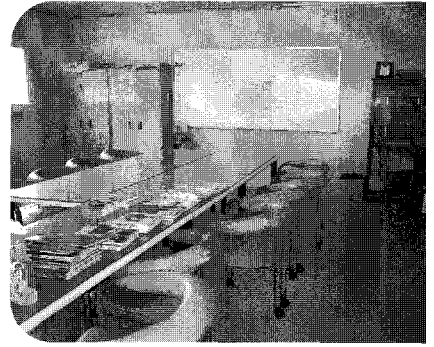
배만용 지부장은 "경주지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경북도 및 경주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양돈농가에 적극 홍보하며, 지부를 통해 각종 사업을 골고루 배정받도록 함으로써 공평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한 월례회의 및 교육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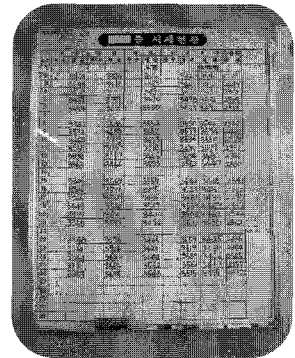
경주지부는 10명의 임원이 모여 매월 임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과 행사를 검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회원들 전체가 모여 월례회의 개최와 함께 사양 및 질병분야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2003년에 주한수 박사, 조동주 양돈연수원장, 부경양돈농협 김만래 대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에는 일본 야마시다 박사로부터 이유자돈 방목시스템 활용방법과 이점 등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한편 세미나가 전개될 때는 경주지역 대부분의 양돈인들이 참석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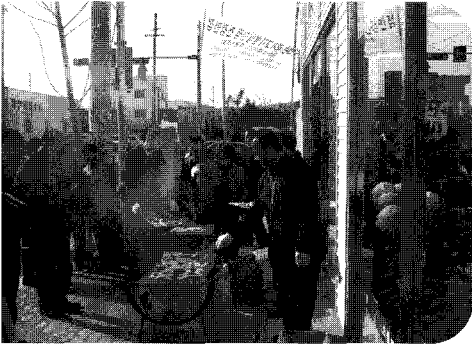
▲ 경주지부 사무실 내 회의실 모습. 경주지부는 10명의 임원이 모여 매월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경주지부에서는 매일 시세현황을 업데이트 해놓고 있다.

무료시식회 및 박람회, 송년의 밤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

경주지부는 각종 행사 개최시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양돈인들이 단합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무료시식회 행사 개최를 통해 돈가안정과 돼지고기 소비촉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에는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전개되었고, 2003년에는 4월 13일 경주역 광장에서 부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청 축산과 및



▲ 지난 2002년 11월 15일에 개최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 지난 2003년 4월 13일 경주역 광장에서 개최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 2003년 무료시식회 행사에는 김일현 시의원(좌측 두번째), 이상호 도의원(좌측 세번째)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측 두번째는 경주지부 배만용 지부장.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일반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국제축산박람회나 브랜드 경진대회 등의 행사가 있을 때 단체 참관을 하여 최신 정보를 얻고 있으며, 회원들간의 의견 교환과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매년 12월 말에는 양돈인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지역 양돈인들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및 단체와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작년에는 부시장, 시의원, 시의원 등 과 회원들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인 권

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공무원 2명에 협회장표창과 4명에 감사패 전달을 하였다. 경주지부는 이처럼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공서에 감사의 뜻을 전달해 나가고, 양돈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개선을 원활히 요청하고 있다.

동기부여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인 참여와 신뢰 이끌어내야

경주지부 배만용 지부장과 김남극 총무 등 임원진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회원농가에 최신 정보와 기술을 보급해 나가기 위해 직접 몸소 실천해 나가고 있다.

배만용 지부장은 “지부를 통해 정부지원사업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배정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미나·교육 등을 통해 양돈농가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관공서 및 관련업체의 협조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회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남극 총무는 “양돈하는데 필요한 사업 전개와 제도개선의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회원증대가 이루어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어 지부가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조금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큰 시행착오 없이 정착되도록 하여 양돈산업의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차단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질병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1농장 시스템화 및 협업 운영체제가 이루어져 방역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양돈**